



저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대 위한 유용미생물 활용

고흥군,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 실시



고흥군은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오는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을 실시 할 계획

이다.

작물용 유용미생물은 농작물 재배 시 토양 내 유해균의 밀도를 낮춰주고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토양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축산용 유용미생물은 기축 면역력 증강 및 소화율 향상,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 악취제거 등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용미생물 4종(유산균, 효모, 고조균, 광합성균)과 작물을 복합미생물 및 클로렐라를 직접 배양, 년간 16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관련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농가는 미생물 활용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용미생물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시항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830-683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수도권 도시민 대상 우수여건 알리며 홍보활동 전개

영광군은 지난 6~8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에 대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영광군은 전국의 지자체 및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로 추진되

었으며 귀농·귀촌 상담관, 농업홍보관 등으로 구성하여 창농·귀농에 대한 정보 특강 등으로 운영되었다.

영광군은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인증을 발급하여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도시민에게 영광의 멋과 농특산물, 문화 관

광)소개, 귀농·귀촌 성공사례,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전시 등 영광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소개하였고 많은 도시민이 찾아와 귀농·귀촌 상담 및 영광 농·특산물에 대한 큰 관심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관 기자

함평군, 정기분 재산세 14억 5천만 원 부과

함평군은 지역 내 소재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천1백건, 1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일시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

다. 또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8~169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한편, 7월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행복지수 총전

구례군,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가금 농가 교육



AI 상시방역 강화

구례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

터 농촌문화홍보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사육농가, 구례축협,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AI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방역의식 고취 및 비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최근 고병원성AI 발생 양상, 차단 방역 실시 요령, 방역 관련 준수 사항, 방역 규정 주요 변동사항 등

을 주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내용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겨울 가금사육 농가와 군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AI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올해도 AI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교육을 통한 자율 방역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지금은 25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장성군 4-H본부 김선희 회장은 “농업농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4-H 운동의 유구한 역사를 기리고, 4-H 아름한 지·덕·노·체를 널리 알리고자 기념탑을 세웠다”고 전임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중요로운 농업·농촌을 가꾸어준 선배 4-H인들의 희생과 현신에 큰 경의를 표하고 이번 기념탑 설치를 계기로 4-H이념과 정신이 지역 곳곳에 전파되어 함께 잘사는 부지농촌을 건설을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가난한 어린 시절 4-H가 운영한 이학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우리 농업·농촌을 훌륭히 가꾸어 오신 4-H인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4-H정신이야말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훌륭한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군 ‘4-H운동 60주년 기념탑’ 건립



장성읍 단광리에 세워

업기술원장, 농업인단체장, 전직 농촌지도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기념탑 건립을 축하했다.

고려시 멘트 정문

맞은 편에 세워진 기념탑은 클로버 모양의 4-H의 상징 마크와 슬로건인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장성군 4-H회는 1958년 2월에 처음 장성군에 도입되어 60여 년 동안 새마을운동 확산, 통일벼 보급, 시범농가 활동, 혁신농업기술 실증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보성군, 어르신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

8개 경로당서 연말까지 주 2회씩 총 206회 진행



보성군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행복지수 총전

행복충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지난 9일 웅지면 대포경로당에서 ‘웃음치료와 함께하는 요가교실’을 주제로 개강했으며, 8개 경로당에서 연말까지 주 2회씩, 총 206회가 진행된다.

전문강사의 지도로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등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금연, 절주, 비만예방교육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와 혈압, 혈당 측정 등 저염식이 실천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청탁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

